

이재명 '마이크로 정책' 행보 가속

한국노총 찾아 노동 정책 협약식

5개 직능단체와 연쇄 간담회

중도층 잡기 반기문 회동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0일 정책 홍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아 노동 정책 협약식을 진행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8일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결정한 바 있다.

이 후보는 한국노총의 결정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노동 존중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지해 주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열세 살 소년공이 긴 고개를 넘고 높은 산을 넘어 드디어 노동 존중 세상을 만드는 초입까지 왔다"며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국민들이 희망을 품는 성장하는 나라, 공평한 나라, 양극화가 완화돼 희망이 있는 세상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한국노총과 협법상 노동기본권의 온전한 보장과 노동자 경영참가 및 노동회의소 도입, 실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내용이 담긴 12대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직능단체와 연쇄 간담회를 열고 정책협약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능단체는 공중위생단체협의회 9개 단체와 전문자격사협회 6개 단체,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8개 단체, 대한약사회, 식품위생단체연합회 6개 단체 등이다.

이 후보는 저녁에는 9개 지역민방사 초청 대담에 출연해 국가

균형발전과 관련한 구상을 설명했다. 소년공 출신으로 시민운동을 거쳐 경기도지사까지 오른 이력을 배경으로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대형 공약보다는 특정 이슈나 계층을 정조준한 '정밀 타격' 형태의 정책을 앞세우는 모습을 보였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담, 생명 안전 약속식 등의 행사에 잇따라 참석해 바쁘다. 이 자리에서 그는 디지털 성범죄 수의 독립몰수제, 변형 카메라 등물제, 딥페이크 영상 표시의무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광주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유가족과 주변 상인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테일한 공약과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마지막까지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중도·부동층에게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안으로 인정받겠다는 전략이다. 이 후보는 오는 1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런 '마이크로 공약'을 계속 내놓을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20대, 3040 여성, 친문 지지층 등 부동층을 집중적으로 겨냥할 것"이라며 "작은 정책이라도 정확한 타기팅이 된 것만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지지세를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도 이어간다. 최근 김중민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전 의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연쇄 회동한 이 후보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은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윤리위원장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중국에 머물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을 소개받으며 엄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이낙연, 이재명 '범인'으로 몰아"

논란 일자 글 삭제...민주당 선대위 경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이낙연 전 대표를 공개 저격했다가 논란이 일자 해당 SNS 글을 삭제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페이스북에서 이 전 대표를 향해 "이재명 후보를 대장동 비리 범인으로 몰았던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그래야 지지자들 도 이해하고 한마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화천대유는 윤석열, 박영수 등 '검찰 카르텔'로 좁혀지고 있다"며 "이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중이던 지난해 9월, 이낙연 후보가 화천대유는 이재명 비리라고 처음 문제를 제기했으나 잘못 짚은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의 근거 없는 네거티브 공격으로 국민의힘도 윤석열도 대장동 비리 주인공이 이재명인 것처럼 만들어 가게 될까 봐 겁이 났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또 "언론도 근거 없는 주장을 무차별적 보도를 쏟아냈다. 상당한 국민들도 그렇게 오해하게 됐다"며 "그래서 대장동이 이재명 지지율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추 전 장관은 급히 글을 내렸다. 현재 그의 페이스북에 해당 게시글은 지워지고 없는 상태. 당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사실상 구원투수로 등판한 마당에 경선 때 갈등을 틈주어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선대위 차원에서 추 전 장관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차산업 시대 디지털 대전환은 국가경쟁력 좌우할 최우선 과제"

박영선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

"광주 인공지능, 전남 신재생에너지

대한민국 미래발전의 초석 될 것

대선 판세 박빙...광주·전남 결집 절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장은 10일 "4차 산업과 디지털전환 시대에 광주 인공지능과 전남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광주·전남의 미래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발전의 초석이다"면서 "다음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유능한 경제대통령인가?

▲현재 우리가 당면한 상황은 민생을 살리고, 4차 산업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느냐, 후퇴하느냐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이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잘 알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정보기술(ICT)산업을 뒤로 하고 4대강, 자원의외교에 빠졌다가 10년의 세월을 잃어버린 것을 상기해야 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ICT 기조를 이명박 정부에서 이어갔으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추월하지 못했을 것이다.

-디지털·혁신대전환 위원회가 하는 일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시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삶의 일부가 바뀌었고, 그 과정에 디지털시대가 더욱 빠르게 오고 있다. 온라인 판매가 그 예다. 또한, 자동차도 내연기관에서 전기로 바뀌는 등 제조업의 컨셉도 바뀌고 있다. 디지털화에 얼마만큼 대한민국이 빨리 적응하고 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최우선 과제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국민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일을 하게 된다.

-디지털·혁신 대전환은 AI 중심도시인 광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산업화 시대에서는 호남이 소외됐다. 이후 초고속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호남도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제는 광주와 전남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다. 이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의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광주·전남이 선도하고 있어서다.

광주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면제 사업으로 유일하게 사회적 접자본시설 투자가 아닌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현 정부에서 집중 투자가 있었다. 이 기세를 이어가야 광주·전남이 앞으로 100년 간 한반도에서 새로운 중심세력으로 재탄생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끊어진다면 광주·전남지역의 불행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 된다. 그래서 유능한 경제대통령이 필요한 것이다.

-광주와 전남에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맞아 추가로 공약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광주는 슈퍼컴퓨터를 넘어서는 양자컴퓨터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 양자컴퓨터 투자를 광주·전남에 하게 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것이다. 그리고 광주·전남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다른 지자체를 앞도하고 있는 RE100을 넘어 RE300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에서는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RE100도 모르는 윤석열 후보가 과연 기후문제, 탄



소중립 문제를 고민해봤을까 싶다.

-디지털인재 100만 양성 공약이 있는데.

▲광주의 경우 AI 사관학교를 운영중이다. 아주 잘하고 있는 일이다.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구직난, 기업은 구인난으로 미스매칭이 일고 있다. 따라서 이 곳에서 앞으로 많은 인공지능 인재를 키워내야 하고, 사관학교를 확대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휴먼 캐피탈 방식으로 정부가 교육비를 우선 지원하고 청년들이 취업한 후 일부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여기에 광주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인재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디지털대전환의 시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광주는 소매상 등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곳이다. 그런데 코로나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는 광주만이 아닌 전국을 상대로 광주만의 맛나는 음식을 배달하는 온라인 마케팅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을 확실하게 챙기겠다.

-선거가 박빙이다. 현재 판세는?

▲초박빙이다. 뒷심이 필요한 시기다. 역대 선거처럼 광주·전남의 열기가 수도권에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민주당의 승리 배경에는 광주·전남 민심의 강한 결집이 있었다. 광주·전남지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다. 호남 민심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다. 그래야 뒷심을 발휘해 막판 승리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갈등이 아닌 성별·세대 갈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때 백인이 차별받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인종간 갈라치기로 선거를 끝이었다. 민주당도 반성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AI(인공지능) 도시 광주의 미래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권필 기자 cki@kwangju.co.kr

/사진·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동백꽃아름다운 거문도

거문도 백도 당일 89,000원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여/행/문/의

|메이투어 062)385-0515

|아이티여행사 062)382-8866

